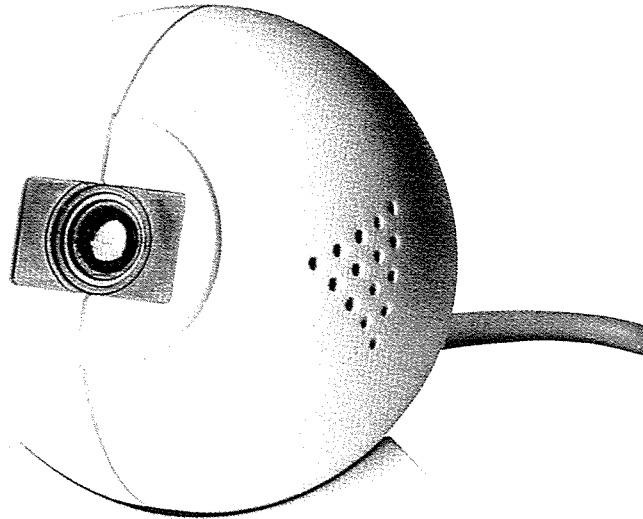


# ● ● ● ● ● ● ● ● ● ● 새제품 새기술

## 첨단과학의 결실 우리생활 이렇게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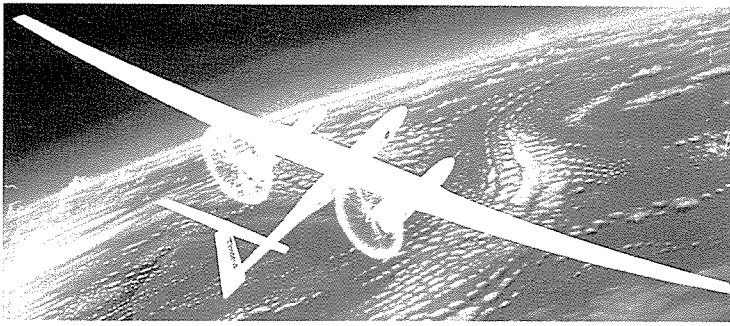
새제품 · 새기술은  
첨단과학과 일상생활에서의  
부단한 연구결과의 소산이다.  
본 난은 최근에 개발 보급되고 있는  
새제품 · 새기술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게재한다.



CONNECTIX

### I 다목적 디지털 카메라

골프공보다 약간 큰 이 작은 카메라는 마이크론을 내장하고 정지화, 애플 퀴크타임 비디오 그리고 미(微)속도사진(식물의 성장과 같은 완만한 연속적인 변화를 보통의 영화촬영보다 긴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촬영하는 일)을 촬영한다. 이 흑백카메라는 매킨토시 컴퓨터의 시리얼 포트에 꽂는다. 3.6mm렌즈는 광각의 65x시계를 갖고 있고 18인치에서 무한대로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맥과 IBM-PC호환용의 컬러 카메라는 1995년 봄에 출시할 예정이다. 값은 1백50달러. 제작소 : Connectix Corp., 2600 Campus Dr., San Mateo CA 94403 U. S. A.



## 2 환경감시용 무선조종 무인기

'테시우스'는 약 32km상공을 순항하면서 미항공우주국(NASA)의 지구위성들이 수집한 환경자료를 이중점검하는 무인 비행기다. 1996년 6월 비행할 예정인 이 비행기는 페세우스 무인 비행기에서 유래한 것이며 고공의 희박한 공기에서 작동할 수 있게 설계된 2기의 특제 슈퍼차지-터보차지 엔진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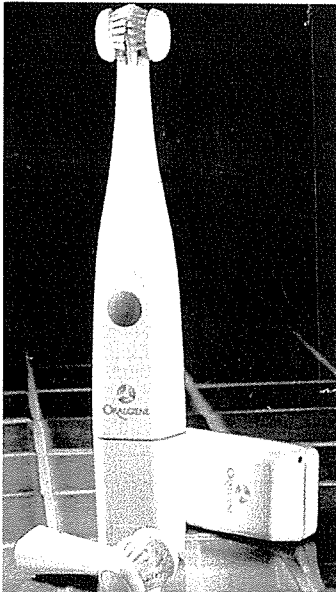
제작소 : Aurora Flight Science Corp., 10601 Observation Rd., Manassas VA 22111 U.S.A.



## 3 거대한 활주차

일본의 기다큐슈시 우주세계오락공원에 등장한 타이탄 롤러코스터(무개객차를 연결하여 고가의 급커브로 된 레일위를 타성에 의해 달리게 하는 활주차)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경사(60도)와 가장 큰 직각 낙차(53.34m)를 가진 코스를 탑승객을 싣고 최고속도 113.4km/시로 질주한다.

미국 유타주의 애로우 다이내믹스사가 설계한 이 3분 승차코스에는 일련의 부메랑 커브가 포함되어 있다. 3천만달러의 이 롤러 코스터는 미항공우주국(NASA) 로켓의 이름을 본떠서 명명했다.



## 4 자동칫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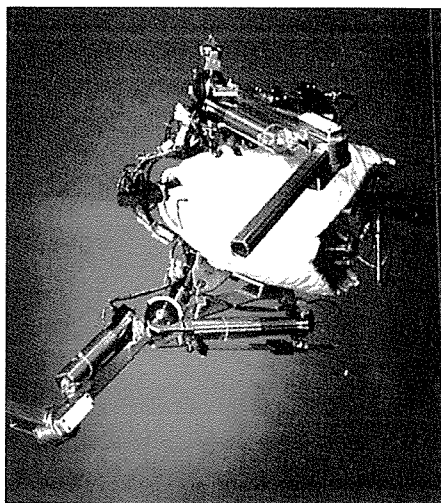
'오랄진'사의 칫솔머리를 물고 있으면 나머지는 이 전기칫솔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메이커는 주장하고 있다. 2개의 외부원형 브러시는 잇몸선아래에 자리하는 한편 2개의 납작한 브러시는 위 아래 이빨표면을 닦는다. 값은 80달러.

제작사: Oralgiene, 1092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24 U.S.A.



## 5 유리섬유의 다리

미국 워싱턴주 올림픽국립공원 스테어케이스 래피드강에 걸친 24m길이의 이 유리섬유로 만든 다리는 미국내의 보행인용으로서의 가장 긴 복합재료 교량이다. 그런데 1993년에 물로 씻겨 내려간 강철제 다리를 대신하여 유리섬유다리를 대체한 까닭은 무엇일까? 강철을 운반하자면 헬리콥터가 필요한데 멸종위기의 보호조류들의 보급지대가 근처에 있는 이곳에서는 헬리콥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필라델피아의 E.T. 테크토닉스사가 제작한 이 경량의 보행용 다리는 노새가 끄는 달구지로 분해해서 현장까지 운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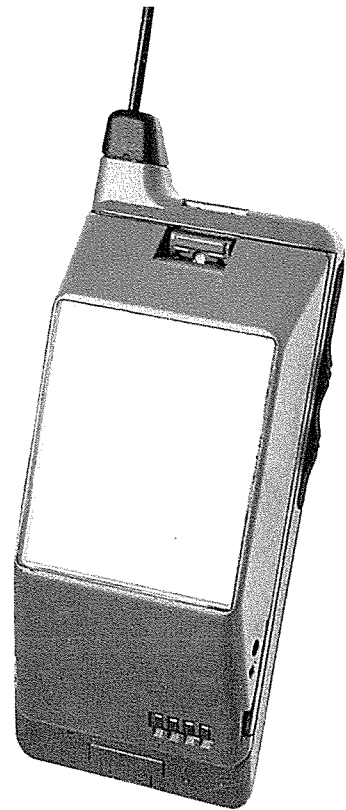
## 6 손재주가 좋은 우주로봇

미국항공우주국(NASA)에 인도된 로보틱 써로게이트는 우주인의 조리사에서 우주공간기지의 건설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우주에서의 작업준비를 마쳤다. 이 로봇의 팔과 어깨는 사람처럼 솜씨 좋게 움직이는데 팔목과 손을 조합한 것이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리스소재 로스-하임 디자인사가 설계한 이 로봇의 팔은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중력이 없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7 가장 얇은 카메라**

손잡이를 제외하면 불과 1인치(2.54cm)밖에 안되는 리코사의 R-1은 세계에서 가장 얇은 35mm카메라인데 35mm필름 롤의 크기때문에 더 얇게 만들 수 없다고 리코사는 말하고 있다. 3백달러의 이 카메라의 특징은 24mm슈퍼광각의 파노라마와 30mm등 2개의 렌즈인데 7존 자동조리개와 시간 및 날짜 스탬프와 자동타이머를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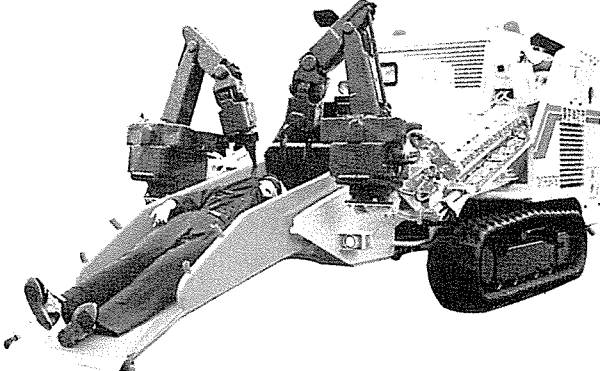
**8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학배터리**

'솔라라이프'를 이용하면 모토로라사의 셀전화(휴대폰) 사용자는 동시에 통화도 하고 배터리도 재충전할 수 있다. 태양에너지로 재충전할 수 있는 이 휴대폰은 햇빛을 통해 재충전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절전하기 위해 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값은 태양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배터리와 비슷할 것이다. 제작소: Bel-Sound Inc., 377 Rt. 17S., Hasbrouck Heights NJ 07604 U. S.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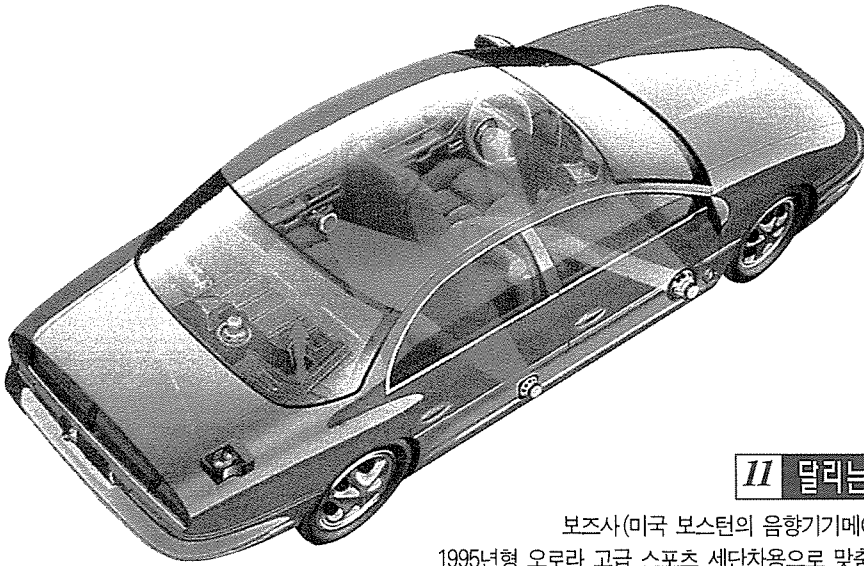
**9 탐조인(探鳥人)에 희소식**

니콘사제의 새로운 '디플로매트'는 가볍고 소형의 쌍안경으로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비구면(非球面) 렌즈는 비틀림을 줄이고 디오퍼(렌즈의 굴절력을 나타내는 단위) 조절장치는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어 재조절이 필요없으며 안경을 쓰고도 전시계를 볼 수 있어 탐조인들에게는 이상적인 쌍안경이다. 값은 8x23 모델이 3백38달러, 10x25 모델은 3백78달러.



**10 구출용 로봇**

동경에서는 타고 있는 빌딩속에 갇힌 희생자들이 로봇과 구출이라는 말의 합성어인 '로보큐'를 부를 수 있다. 위험한 구출작업을 할 수 있게 설계된 '로보큐'는 비디오와 적외선 카메라 그리고 초음파센서를 이용하여 270m까지 떨어져 있는 트럭에 거치된 제어패널로부터 원격조종된다. 로봇 팔은 의식을 잃은 희생자를 들것에 실을 수 있다. '로보큐'는 동경 수도권 소방청과 산업장비 메이커인 아이치사가 1백90만달러의 비용을 들여 개발했다.



## II 달리는 음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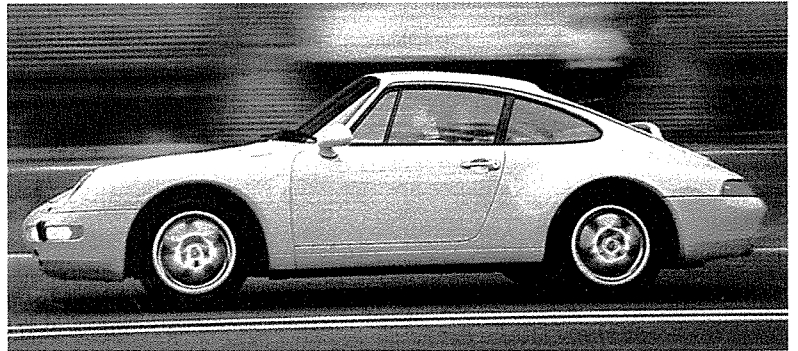
보즈사(미국 보스턴의 음향기기메이커)의 어쿠스티마스 스피커 시스템은 1995년형 오로라 고급 스포츠 세단차용으로 맞춤 제작된 것이다. 7개의 스피커가 차의 어떤 좌석에서도 생음악을 듣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제공한다. 12디스크 체인지를 포함한 보즈 시스템의 값은 3만1천9백95달러의 오로라용의 옵션으로 1천1백31달러인데 울즈모빌 거러처에서 팔고 있다.



## 12 직후의 견인장치

진흙이나 모래 또는 눈때문에 거의 통과할 수 없는 지형에서 이 '매트릭스' 개장(改裝)시스템은 4륜구동 픽업트럭의 4바퀴에 탱크같은 견인력을 제공한다. 메이커는 손공구로 30분이면 개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1만5천달러의 이 시스템은 켈바 강화의 벨트와 톱니바퀴가 달린 전동장치를 사용한다. 16인치(40.64cm) 넓이의 트랙 폭은 거의 모든 4x4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

제작소: National Transmission, 1436 Main Ave, N., Thief River Falls MN 56701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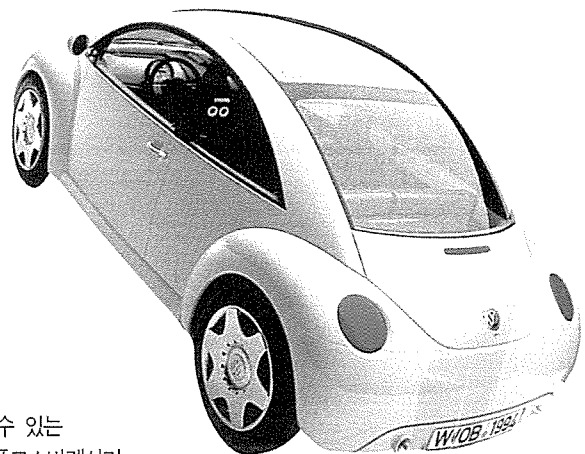


## 13 새로 태어난 캐버리어차

쉐보레의 13년된 캐버리어차가 최근 완전히 재설계되어 종전보다 더 날씬하고 공간도 넓어졌다. 캐버리어차는 2.2 리터 엔진을 그대로 가지고 바꾸는 앞과 옆으로 옮겨 객장을 더 넓게 만들었다. 새로 설치한 '코일 오버 쇼크' 서스펜션은 덜컹거리는 충격을 누그러뜨린다. 값은 1만5백45달러(쿠페)와 1만2천9백50달러(LS 세단)이다.

## 14 돌아온 '딱정벌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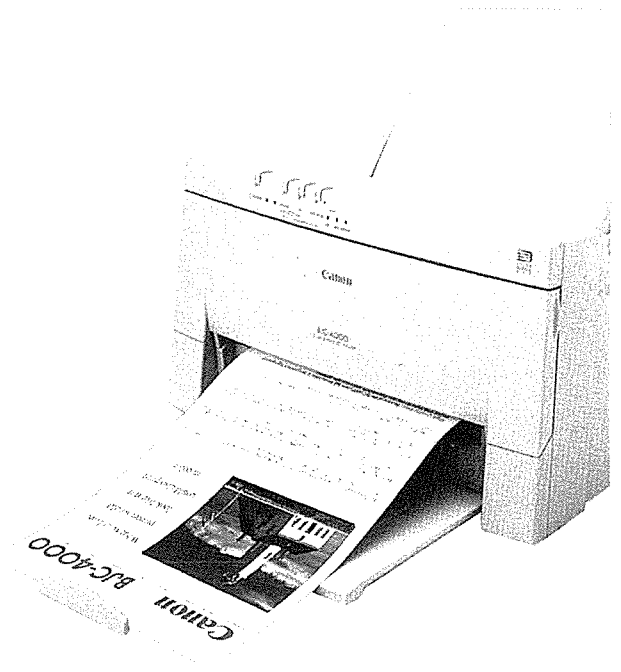
폴크스바겐의 컨셉트 1은 한때 자동차의 반체제문화로 규정했던 차의 리바이벌판이다. 현대판 컨셉트 1의 스타일은 새삼 신선한 감을 준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혁신적인 디젤/전기 혼합형을 포함하여 이 차의 3가지 다른 동력장치의 설계옵션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연비를 극대화한다. 이 컨셉트카는 폴크스바겐사가 이미 발표한 이와 비슷한 차의 생산을 추진하면 현실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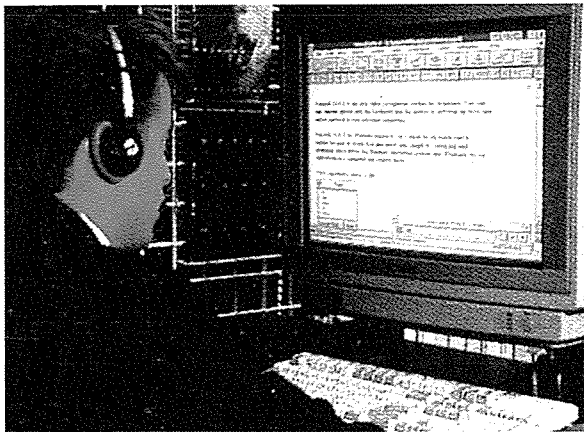
### 15 눈을 따라 움직이는 기계

인간이 바라고 있는 최후의 꿈의 기계는 인간의 생각에 복종하는 기계다. 이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캐논사는 눈의 움직임에 호응하여 기능을 발휘하는 '무비보이 E1'이라는 캠코더를 개발하여 이런 꿈에 한발짝 다가 섰다. 캐논의 EOS정지 카메라에서 차용한 기술을 사용한 무비보이는 사용자가 명령이나 또는 아이콘에다 눈의 초점을 맞추면 자동으로 초점도 맞추고 되감기도 한다. 값은 2천달러.



### 16 최고속 버블 프린터

캐논사의 BJC-4000은 분당 5면의 비율로 인쇄하는 가장 빠른 컬러 버블-제트 프린터이다. 5백49달러의 이 프린터는 인치당 360x360 도트를 찍어 낸다. 이 프린터는 2개의 카트리지(1개는 3색 카트리지 또 하나는 흑색 카트리지)를 사용하여 콤비네이션 카트리지를 보다 빈번하게 대처하는 비용을 절감한다.



### 17 메모하는 컴퓨터

윈도우즈PC(퍼스널 컴퓨터)의 최초의 받아쓰기제품인 '보이스 포 윈도우즈'는 커즈웰의 정확하고 많은 어휘를 가진 음성인식시스템을 오늘날의 가장 인기있는 소프트웨어에 도입했다. 이 제품은 종전처럼 사용자의 목소리를 익히기 위한 훈련이 필요없어 당장 PC에다 대고 이야기를 개시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사운드판과 마이크론 그리고 리스트를 포함하여 9백95달러.

### 18 영리한 벽

미국 데이턴대학에서 개발된 상변화(相變化)벽판은 '집안의 날씨'를 제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벽판에 내장된 작은 파라핀 용구(溶球)는 특정한 온도에서 액체로부터 고체로 상을 바꾼다. 그래서 방의 공기가 그 수준을 넘어서든가 또는 그보다 낮아질 때 벽판은 방을 안락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열을 흡수하거나 또는 방출한다. 이 벽판은 가정의 온도조절비용을 20% 까지 절약할 수 있다.

